

한국노인회 일부 공조회원들 약정금포기 타상조회로 옮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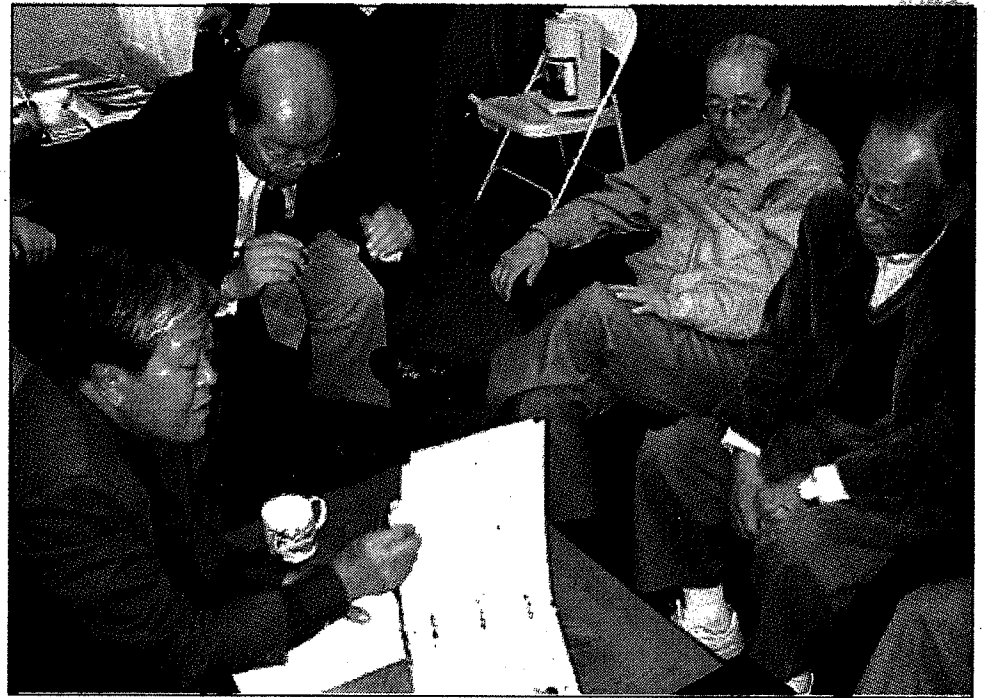
LA한국노인상조회로 가입비없이 이적 합의

불투명한 자금운용으로 약정된 상조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60여명이 그동안 아껴둔 쌈지돈으로 틈틈히 부었던 한국노인회의 '저승길 노자돈'을 포기하고 결국 LA한국노인상조회로 적을 옮기기로 했다.

한국노인회 공조회 신봉희(80)할아버지 등 3명의 공조회 대책위원들은 29일 오전 LA한국노인상조회 노천환 회장과 만나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회원들이 가입비(100달러)없이 희망자에 한해 한국노인상조회에 가입할 수있도록 합의했다.

신봉희씨는 "한국노인회에서 어차피 가입비도 다 날아갔고 공조회측의 비리를 증명할만한 법적 증거를 내놓기 힘든 판국에 시비를 가려서 돌아올 것도 없다"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상조회에 가입해 더 큰 피해를 막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책"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노인회 소속 공조회원들의 편입을 결정한 한국노인상조회의 노천환 회장은 "떼어먹을 돈이 따로 있지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흥분하며 "희망자에 한해 숫자에 관



LA한국노인상조회 노천환(맨 왼쪽) 회장과 한국노인회 공조회 대책위원들이 공조회 소속 회원들의 가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드, 신분증등을 지참해 방문,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면 되며 71세미만은 일반상조회, 71~85세까지는 특상조회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규 가입할 한국노인회 공조회 소속 회원들의 향후 상조회내에서의 위치문

년반동안 공조회 운영은 5일전 그만둔 실무자 서보배씨가 전담해서 세부사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항간에서 운운하는 5만달러의 가입비와 연회비 남용은 나를 음해하려는 거짓말이며 애당초 적립금이 사망자

EVERETT
PV110E